

탭 1

< 한번의 로입캠프 합격수기 >

2025학년도 입시 후기

인하대학교

1. 최종 정량 (리트, 학점, 토익, 어학, 메가 기준 최종배수:추정치)

- 120 초반 / 90 중반 / 900 중반반 / 3배수

2. 본인의 로입 준비과정

- 23년도 3월에 장교로 전역하여 대통령 경호처를 목표로 공무원 시험인 PSAT을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결이 비슷한 시험이라고 들었던 리트도 같이 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높지는 않지만 입시를 도전해볼 수 있는 점수를 받게 되어 로입 준비와 경호처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에 우선순위가 있었고 로입은 그저 우연한 기회였기에 대형학원에서 제시하는 방향으로 큰 고민 없이 자소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 곳에서는 정량상 커트라인 안쪽 배수였지만 1차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은 운 좋게도 1차 합격을 하게 되어 면접을 볼 기회가 주어져 학원을 통해 면접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 나름 면접장에서도 답변을 잘 구성하고 추가 질문에도 침착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과를 보니 예비번호도 받지 못하고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봤던 경호처 면접에서도 탈락하게 되어 결국 준비했던 모든 방향에서 탈락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로입에 집중하기로 결정했고, 부족했던 정성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일반대학원 법학과와 사이버대 법학과 과정을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형학원에서 리트 수업도 들었고, 적지 않은 나이인만큼 차선의 플랜이 필요했기에 취업도 병행했습니다. 이렇게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며 정말 열심히 준비했지만, 리트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되며 자소서와 면접에 시간을 들일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대형학원에서는 개인만의 고유성에 대한 탐색과 지도해주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한번 캠프에 등록해서 자소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원교종 한 곳은 탈락했고 면접에 대한 준비도 부족해서 면접장에서 잘 못봤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캠프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배수를 뒤집어 최초합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S1-S4 과정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 한번캠프 자소서 작성 과정에서 가장 컸던 도움은 '고유성'의 탐색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 법이라는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궤적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 속에서 법조인으로서의 능력과 태도를 찾고 이를 글로 제시할 수 있게 지도해주신 점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초반 과정은 그저 단순히 내 경쟁력을 찾는 것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조인으로서의 동기를 찾거나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어렸을 적 기억부터 조금씩 시간을 되짚어 보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슨 생각을 가졌고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살펴보며 앞으로의 방향을 찾고 '나'의 가치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그저 흔한 탈락 사례로 말씀해주셨던 경험의 나열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고, 수많은 지원자 중 고유성과 경쟁력이 없는 흔한 스토리로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후반부 과정에서는 키워드를 뽑아주시며 실질적으로 자소서를 쓸 방향을 논의해주신 점이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이미 로스쿨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아 보고 법조인의 시선을 가진 분들께서 제시해주신 관점들이 없었다면 아무리 고유한 개성이더라도 그저 관련없는 타 분야의 개인으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제가 배수를 뒤집고 합격할 수 있던 것은 아마 삶의 궤적에 대한 고민과 이를 법이라는 분야와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점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조언과 상의를 해주셔서 실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 어떤 변호사의 지도가 가장 도움되었는지?

- 선반공 변호사님과 함께 그간 경험과 삶의 내용을 공유하고 어떻게 이를 풀어나갈지 고민했던 과정이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낮은 자세로 이야기를 많이

경청해주셨고, 키워드를 뽑아내고 문장을 서술함에 있어 전문가로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또한 민감할 수 있는 본인 개인사에 대한 공유와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을 통해 인간적인 신뢰감 또한 만들어 주며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던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5. 한번의 로입캠프 과정에서 가장 추천하는 부분

- 자소서 과정만 함께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추천을 할 수 밖에 없지만, 기타 대형 학원에서의 경험과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그 차이점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캠프의 개개인의 '고유성'을 찾는 과정은 경쟁력 있는 자소서의 원천이 되며, 본인의 삶을 되돌아 보며 법조인의 진로에 대한 확연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다양한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점과 개개인들에게 상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주시는 부분은 바쁜 직장인으로서 짧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반면 대형 학원에서는 담당 교수별로 수많은 학생이 지도를 받으며 정신없이 자신의 차례가 되면 간단하게 조언을 받고 지시대로 방향을 수정합니다. 가끔은 담당 교수가 본인이 했던 조언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게 충분한 고찰과 고민 없이 만들어진 자소서는 경쟁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로입의 성패를 갈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 만약 같은 커리큘럼의 과정을 추천한다면 어떤 분에게 추천하실 건지?

- 법 분야와 크게 관련성 없는 배경의 지원자들은 더욱 자신만의 고유성을 찾고 이를 법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한번 캠프의 자소서 과정은 정말 큰 도움이 되며,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7. (면접 과정에 참여했다면) 면접 과정이 어떻게 도움 되었는지?

- 응답 없음

8. (면접 과정에 참여했다면) 면접 과정은 어떤 분에게 추천하실 건지?

- 응답 없음